

청·장년 성경공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학습 공과>

글쓴이 : 브라이언 하버 (Brian Harbour)

레이 폴러드 (Ray Pollard)

로니, 리네이트 후드 (Ronnie and Renate Hood)

조 칼드웰 (Joe Caldwell)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저작권 © : 200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사역팀장: 필 밀러 (Phil Mill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에베소서 학습공과 (1과 ~ 7과) 번역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8과 ~ 11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12과 ~ 13과) 번역
김승시 (한우리침례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학습공과 (1과 ~ 13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9년 4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 와 **‘탐구질문’** 과 **‘학습목표’** 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 과 **‘수업계획’** 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 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 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청.장년 성경공부 학습공과 저자들

Brian Harbour 에베소서 1-4과를 썼다. 텍사스 리차드슨에 소재한 제일침례교회에서 41년을 목사로 섬긴 후 은퇴했다. 은퇴 후 Harbour 리더쉽 센터와 SeminaryPLUS 라는 비영리 기관을 세워 목회자 교육을 돕고 있다 (www.seminaryplus.org 참조). 그는 계속해서 Baylor Health Care System Board 의 회원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Dallas Baptist University 의 보조 교수이다. 또한 그는 Baylor 대학교 종교학과에 있는 Winfred Moore 초청 교수로서 사역하고 있다.

Ray Pollard 에베소서 5-7과를 썼다. 현재 은퇴 사역중인 Plloard 박사는 North Carolina, Tennessee, Virginia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했었고 Virginia Baptist General Board 의 스태프로서 봉사했었다. 그는 이전에 BGCT 의 본 성경공부 시리즈 제작에 세 번 참여했었다.

Ronnie and Renate Hood 빌립보서에 관한 8-11과를 썼다. Ronnie 박사는 텍사스 Longview 에 소재한 Fellowship Baptist Church의 담임 목사로 시무중이며 BGCT 행정부에서도 사역하고 있다. 그는 Alabama Birmingham 에 있는 Samford University를 졸업했다. Renate Hood 박사는 텍사스 Longview 소재의 LeTourneau University에서 그리스어와 성경신학 부교수이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medical science 학위를 얻었다.

Joe Caldwell 골로새서 학습공과를 썼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로 시무했고 군목으로 6년을 시무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Golden Gate Theological Seminary 의 스태프로 일하면서 신약성경 Ph.D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그는 Golden Gate 의 보조 교수로서 영성 훈련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2

저자 소개.....4

단원 1 : 에베소서

공부할 날짜

제 1과 _____ 하나님의 계획.....8
(엡 1:1-14)

제 2과 _____ 하나님께서 만드신 변화를 찬양.....13
(엡 2:1-10)

제 3과 _____ 모든 그리스도 안의 가족들을 사랑하라.....18
(엡 2:11-21)

제 4과 _____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라24
(엡 3:14-21)

제 5과 _____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라.....29
(엡 4:1-16)

제 6과 _____ 인도를 따라 감.....35
(에베소서 4:17-5:2, 11-16)

제 7과 _____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41
(에베소서 5:21-6:4)

단원 2: 빌립보서

제 8과 _____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 봄48
(빌립보서 1:12-14, 19-26)

제 9과 _____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감.....54
(빌립보서 2:1-11)

제 10과 _____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 함.....61
(빌립보서 3:1-14)

제 11과 _____ 주 안에서 기뻐하라.....68
(빌 4:4-20)

단원 2: 골로새서

제 12과 _____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74
(골 1:15-23)

제 13과 _____ 영적 속임수가 아닌 실재에 집중하라.....80
(골 2:6-23)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하지만 어떻게?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로부터 만들어진 본 교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 그러한 교훈들이 이 서신서들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옥중서신

이 서신서들은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옥 중에 있을 때 쓴 서신들이기 때문이다 (엡 3:1; 4:1; 빌 1; 골 4:10; 몬 1,9,13,23).

사도행전은 바울이 가이사랴와 (행 24) 로마 (행 28)에서 감옥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옥중서신” 은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본다.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쓰고 있었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서신서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록 “옥중서신” 이 빌레몬서를 포함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만 이 교재에서 다룰 것이다.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유익한 통찰력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풍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BGCT에서 이미 빌레몬서에 대한 성경공부 시리즈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단원 1 : 에베소서

본래 에베소서가 보내진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통치하의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근대의 터키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본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풍부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장엄한 광경에서 시작해서 (엡1장 -3장)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명 (4장 -6장) 한다.

서신의 배경인 1세기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관심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 (엡 2:14) 썼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깨어진 오늘날의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다. 또한 한 때는 “이방인들” 이고 “외인들” 과 같았던 이방인들과 같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단원 1. 에베소서

제 1 과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 1:1-14
제 2 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성을 찬양	에베소서 2:1-10
제 3 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가족을 사랑함	에베소서 2:11-21
제 4 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어놓으신 모든 것을 찬양	에베소서 3:14-21
제 5 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감	에베소서 4:1-16
제 6 과	지시를 따름	에베소서 4:17-5:2, 11-16
제 7 과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에베소서 5:21-6:4

<p>[제 1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엡 1:1-1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엡 1장</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해놓으신 풍성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p> <p>학습목표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다.</p>

들어가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프로골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유명한 이 프로골퍼는 어느 나라의 국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정중한 초청을 받았다. 국왕은 그 골퍼에게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그의 왕국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곳에 있는 동안 국빈 대우를 해주었다.

그 프로골퍼가 일정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날 국왕은 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양했지만 국왕은 집요하게 요청을 했다. 골퍼는 항상 새로운 골프 클럽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것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말한 후 골퍼는 다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가 지났지만 국왕으로부터 그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 골퍼는 국왕이 어떤 골프 클럽을 보낼 것인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아마도 국왕은 보석이 박힌 퍼터나 그 골퍼의 이름이 새겨진 드라이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골퍼는 국왕으로부터 온 한 봉투를 받았다. 그 작은 봉투에 자기가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골프 클럽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혼동과 함께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골프장 평생 회원권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골퍼는 드라이버나 퍼터가 들어있는 골프 클럽을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국왕은 그 말을 컨츄리 클럽과 같은 골프장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프장을 의미하는 골프클럽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때 우리는 드라이버나 퍼터가 들어있는 골프클럽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약속 (1:1-3)

에베소서 서론을 거론한 후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제시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엡 1:1-3)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감시하며 벌을 주는 잘못된 고아원 원장이나 백성들을 압제하는 독재자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

바울은 감사와 찬양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크고 귀한 유익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간다.

그는 '신령한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3절).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3절). 신령한 복은 최상의 복이다. 그는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이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것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복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령하고도 하늘에 속한 복이 가장 좋은 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1:4-12)

본 절에 나타난 신령한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세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문전에 있는 거지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갑작스런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주는 것들은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줌으로써 그의 영원한 목적을 시행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이 선택에는 한 가지 큰 의도와 목적이 있다. 4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4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최종적이고도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신의 목적이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피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을 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로 보증을 삼으신 것은 풍성한 은혜였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9절). 이것은 그리스도 덕택이다. 그는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우리 구원의 복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13절). 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11절). 하늘나라는 곧 기업이다. 자녀는 상속자이다. 우리가 수중에 지니고 있는 온갖 축복들은 장차 기업으로 받을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속자가 미성년이었을 때 주어진 것은 그가 어른이 될 때를 위해서 남겨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선택되었고, 구속되었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구원이 실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 해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보증자 (1:13-14)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3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케 하신다. 그는 약속의 성령이시다. 성령에 의해서 신자들은 인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 성령은 '우리의 상속에 보증'이 되신다(14절). 보증은 일부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지불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성령의 영향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영광의 씨가 부러지고 싹이 돋게 된다. 그의 위로하심은 영원한 기쁨을 보증한다. 그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기까지 보증하시는 자로 일컬어진다. 이 보증으로 인하여 상속자들은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얻어진 바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크신 목적과 의도는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는 우선권이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오래 입은 자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의 그의 크신 계획이라고 하겠다.

적용 및 실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원들의 부족함에 직면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들이 그러한 인생의 도전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풍성함의 범위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확인해주기를 “온갖 신령한 복” (1:3) 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땅의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종종 약속한다. 만일 우리가 충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부,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셨다고 약속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대들 속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질문

1.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2.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복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 3.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 4.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참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주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 이슈를 일으켰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엡 1:4) 라고 주장했다.

이 어려운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만일 우리가 “세상 창조 전에” 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택의 자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만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기 쉬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 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 으로 들어올 것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가 되도록 마음 먹으셨다.

[참고]

우리의 특권을 상실한 채 살지 말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 ◆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롬 8:16).
- ◆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엡 3:20).
-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목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전 2:9).

<p>[제 2 과]</p>	<p>하나님께서 만드신 변화를 찬양</p>
<p>핵심본문 엡 2:1-10</p> <p>배경 엡 2:1-10</p>	<p>학습 주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을 때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p> <p>탐구 질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p> <p>학습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일으키시는 다양성을 묘사하고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p>

들어가기

신약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더욱 긴박한 질문이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공동체의 문화, 혹은 심지어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진리에 대한 이해이다. 포스트모던적인 사고는 다양한 종교들이나 견해들로부터 나온 사상이나 신조들을 혼합하거나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자이너 종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사상은 본인 좋아하는 어떤 것을 발견할 때까지 혼합하고 결합시키는 것이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은 모두 옳은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결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상대주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에 대한 모델을 확증한다: 죽음으로부터 (엡 2:1-3) 생명으로 (엡 2:4-5), 선한 일을 위하여 (2:10) 은혜로 말미암아 (엡 2:6-8) 믿음을 통하여 (엡 2:8-9).

죽음으로부터 (2:1-3)

중생하지 않은 영혼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다. 죄는 영혼을 죽인 것이다. 죄가 넘치는 곳마다 모든 영적인 생명은 소멸된다. 죄의 상태는 곧 이 세상과 부합한 상태이다.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2절). 즉 이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고 처신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에 노예가 된 자들이다. 이 세상 풍속을 좇아 행하는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한다.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노예가 된 자들이다. 그들의 삶의 행로와 방식은 사단의 지식에 따른다. 즉 그들은 사단에 예속된 자들이며 따라서 사단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 일컬어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2절). 선한 영은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선한 것으로 역사한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것으로 역사한다. 또한 사단은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본래 육체와 부패된 마음에 매였던 자들이다. 우리는 부패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 (3절). 사람은 본질상, 즉 관습과 모방에 있어서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성향과 욕망에 있어서 모두 똑같다 (3절). 우리의 상태와 행위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러한 것들로서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진노로 마쳤을 것이다. 따라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죄인들이 주저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세 종류의 힘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 마귀, 그리고 육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태도들에 의해 영향 받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대로 행하였다. 바울이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였을 때 어떤 신체적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으로 (2:4-5)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대해서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자신이 크고 복된 변화의 장본인이 되신다. 사랑은 단순히 피조물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긍휼은 곧 우리가 타락한 비참한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한 긍휼이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5절). 8절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모든 회심한 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분에 넘치는 선이며 은총이다. 또한 그는 그들을 구원하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신다. 믿음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도록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5절). 영혼 안에서의 은혜는 영혼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고 하겠다. 죽음의 인간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봉인해 버리듯이 죄의 상태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 봉인해 버리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풀고 열려 주며 영혼을 성숙시킨다. 중생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므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 14:19)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이 새생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완전히 갚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분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21절에서 언급했던 말은 이 과정을 분명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2:6-9)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선물로 인한 현재 (2:6)와 미래 (2:9) 모두를 정의한다. 바로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2:6).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은 이미 거기로 옮겨져 있다. 하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들이 얻는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본문은 좀 더 말해주고 있다. 어느 날,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2:7) 보일 것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조차 없이 커다란 복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재와 미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울은 두 개의 중요 단어로 그 질문에 대답한다: 은혜와 믿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표현되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단어 “은혜” 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며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다. 믿음은 마음과 의지가 사용되는 과정이다. 믿음은 이 생명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이 선물을 원하는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꺼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일을 위하여 (2:10)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이 공급해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행동들과 관계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따르면 죄에 속한 악한 일들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에 속한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들은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의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되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패턴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도 이러한 성경적인 모델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용 및 실천

오늘 본문은 확신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확신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선택된 어떤 특정한 부류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동료들 가운데서 성공한 부류에 속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함을 보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 즉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본문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준다. 본문은 선행이나, 혹은 그들의 선함으로 사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을 경고한다. 신약성경의 유일성이 본 구절에 드러난다. 또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 14:6)고 말한 것을 기억하자.

질문

1. 오늘날 왜 다원주의가 대중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것에 끌리는가?
2. 왜 행위의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가?
3. 오늘 본문은 사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4. 당신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에 관한 모델을 지지하거나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성경구절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5.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에 의한 구원과 선행을 위한 구원 사이의 구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차이점을 종종 흐릿하게 하는가?

[참고]

사례연구

어떤 새로운 이웃들이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커플을 초대했다. 그들의 예배는 불교의 절에서 드러졌다. 우리 교인들은 이 커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동의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불교신자 커플은 저녁에 시간이 나면 자기들 집으로 와서 기독교가 불교와 어떻게 다른 지를 토의하자고 요청했다. 우리 교회의 그 커플은 불교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몰았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줄 것인가?

<p>[제 3과]</p>	<p>모든 그리스도 안의 가족들을 사랑하라</p>
<p>핵심본문 엡 2:11-22</p> <p>배경 엡 2:11-22</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p> <p>탐구질문 왜 우리는 - 침례교, 그리스도인, 인간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협력하여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너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 됨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오늘날 그 하나 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파악한다.</p>

들어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되어 인종과, 사회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했었다. 심한 라이벌 의식, 심하게 말하면 증오가 이 두 무리 사이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두 무리를 서로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감히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갈라진 틈 (2:11-12)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는 잘 알다시피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 뒤 문장의 결과가 앞 문장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준다. 이 앞 글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그리고 범죄와 불순종으로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렸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 유대인들을 “할례자” 라고 부름으로써 구분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시였다.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주셨고, 그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리고 그의 예언자들을 보내 주셨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외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혜택들이 없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셨다. 사실 이러한 각각의 표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단지 확증하거나 갱신한 것이었다. 계약은 둘 사이에 동의한 약속으로서 각각 책임이 있고 각각 상대방에게 특정한 약속들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러한 약속들로부터 제외된 상태였다.

또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이” 살았다.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꼭 지킬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한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바울 시대의 이방 세계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숭배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참된 평화, 참된 능력,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화해 (2:13-16)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 졌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피 때문에 동일시되었다.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제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했다.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젠 사람의 생명이 더 이상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르는 벽은 무너졌다. 이전에는 이 두 무리가 갈라져 있었다.

이 두 민족들 사이의 장벽은 이전에는 두 가지로 상징했었다. 첫 째로, 성막에서 이방인의 뜰을 나누었다. 어떤 외국인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율법과 율례들이 또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었다.

예수님은 이 두 무리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2:15) 만드셨다. 그리스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새로운”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네오스 (neos), 이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카이노스 (kainos),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카이노스이다. 즉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해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정죄의 율법과 그 것이 가져오는 적대감정을 제거 하셨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다.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만이 차이점을 가르는 기준이다.

결과 (2:17-22)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두 가지를 가져다주었다: “평화” (2:17) 와 “나아감” (2:18). “평화” 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 내적 확신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평화” 였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셨다 (2:15); 그리고 그는 평화를 전하셨다 (2:17).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평화의 사역이었다. “나아감” 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나아감” 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프로사고게 (prosagoge)이다.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다. 그 단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오게 해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혹은 외교 회의에 사신이나 대언자를 소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어떤 사람을 왕에게 소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 모든 의미가 본문에서 바울이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러한 공유된 평화를 통해 함께 부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2:19) 라고 확신을 줄 수 있었다. “외국 사람”은 그리스어로 제노이 (xenoi) 이다. 그 단어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온 사람을 의미한다. 고대 세계에서 외국인은 항상 의심 받았고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 “나그네”는 파로이코 (paroiko)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단어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외국 사람과 나그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지위는 바뀌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이러한 새로운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시민” 이라는 것을 입증시켰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왕국 이미지를 사용했다 (2:19). 이 단어, “시민” 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 째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 같다. 사람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왕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느 방법도 안 된다. 또한 하나님 왕국의 지위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 같다. 교회는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지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 같다. 왕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왕국의 일부인 것이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새로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친밀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이방인들이 또한 “하나님의 가족” (2:19)이라고 확증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의미했다. 가족은 나라보다 좀더 친밀한 용어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어느 수준의 공통점과 공통적인 꿈을 표현했다.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은 20절에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건물로 세워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이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신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에 의해 최초로 선택되었던 사람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바울을 포함해서)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

바울이 언급한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첫 째로, 시간적인 순으로 볼 때 “선지자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있었던 자들인데, 본문은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4:8-11절에서도 “사도들” 다음에 바로 “선지자들”을 언급했다. 이 “선지자들”은 승천하신 주님께 의해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셋째로, 엠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라. 거기서도 역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언급은 분명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단지 2차적인 기초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일차적인 기초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산돌이다 (2:21).

적용 및 실천

교회는 세상에 새로운 어떤 것을 소개했다. 첫째로, 교회는 새로운 종류의 하나 됨을 세상 속으로 소개했다. 우리 모두는 외적인 것들로, 예를 들면 국적, 외모, 비슷한 개성들이나 혹은 삶의 양식들로 하나 됨을 경험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 됨을 경험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다는 내적인 실재에 근거한 하나 됨이다.

교회는 또한 이 세상에 새로운 동등 됨을 소개했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동등 됨으로 경험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신실한 순종의 책임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특권도 모두 동등하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 새로운 친밀성을 소개했다. 우리는 우리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가족을 훨씬 더 친밀하게 안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질문

- 어떤 장벽들이 다른 사람과 우리들을 분리시키는가?
-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하나 됨을 드러내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교회를 묘사했던 어떤 이미지가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 왕국, 가족, 혹은 건물?
- 4번 문제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참고

계약

“계약”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만들어진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과 이러한 종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다. 계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정한 약속들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특정 의무들을 요구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착각하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약 개념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셨다 (창 12:2).

우리는 이 과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주장하라.
- ◆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그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다른 점들을 보이더라도 말이다.
- ◆ 하나님 왕국에 장벽들을 세우는 세력들과 싸우라.
- ◆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부류로 나누는 사람들과 싸우라.

<p>[제 4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라</p>
<p>핵심본문 엡 3:14-21</p> <p>배경 엡 3:1-21</p>	<p>학습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보다 위대한 영적인 강인함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p> <p>학습목표 보다 위대한 영적인 강인함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에 열려 있는 나 자신을 만들도록 한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들어가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특권 중의 하나는 기도의 특권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기도의 온전한 차원들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간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의 다른 면, 예를 들면 찬미와 같은 부분을 무시해버린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이루신 것을 찬미하는가? 그것이 구약의 기도의 책인 시편의 강조점이다. 감사 역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즉 감사절에만 잘 하는 기도의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통 기도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는가? 고백은 어떤가? 고백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백의 시간을 기도에 포함시키는가? 아직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중보기도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의 자세 (3:14-15)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창 18:22),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역대상 17:16),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다 (마 26:39). 또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종종 나타난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단 6:10).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은 이유를 우리는 15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왜 바울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은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온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네 가지의 간구했고, 그것들은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는 강건함 (엡 3:16), 영적 깊이 (3:17a), 깨달음 (3:17b-19a), 그리고 충만함 (3:19b)을 위해 기도했다.

바울의 기도 (3:16-19)

바울은 먼저 에베소 지역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다 (3:16). 그는 특히 하나님께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했다. 속사람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발산하는 중심이다. 잠언서 기자는 마음, 혹은 속사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잠 4:23).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의 겉 사람 - 육체는 매일 쇠퇴하고 있다. 이것은 에베소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 - 영 - 이 매일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강건함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힘을 경험하기를 기도했다.

그의 중보기도 속에서 바울은 또한 영적 깊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엡 3:17a).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했다. “머물러 계시다” 라는 단어는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께서 머물러 계셨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편안히 자리 잡으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했다.

1년에 몇 번씩 아내와 나는 장모님 집을 방문해서 들르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몇 일동안 방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가지들을 싸와서 다른 집의 침대에서 잠을 청한다. 우리는 며칠 동안 머무르지만 완전히 집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면 너무나 편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거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바울은 설명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그의 마음 안에 자리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 가지를 더 구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기도했다. 바울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이해를 구했다. 바울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에베소인들은 어떻게 이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두 가지 자격을 언급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야 한다. 삶이 다른 신자들에게 오픈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는 모두 확장될 것이다. 둘째로,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야 한다. 바울은 여기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의 비유를 혼용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의미는 같다. 나무는 그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튼튼하며, 건물도 기초가 깊고 강해야 건물이 견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했다 (3:19b).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을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에베소 신자들이 그들의 은사를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잠재력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들이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확장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사랑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개발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이 모든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바울의 기도 (3:20-21)

바울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보이는가? 만일 그것이 바울이나 에베소인들에 달린 것이라면 그 대답은 “아니오” 일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계신 그리고 에베소인들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3:20). 그것만으로도 환상적인 약속이지만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울은 세 개의 그리스 단어로 하나의 복합적인 단어 “넘치게”를 구성했다. 이 복합어는 문자적으로 지칠 줄 모르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묘사를 이 세상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적용과 실천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이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과 정말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을 체험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든, 경험했든, 느꼈든, 해왔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시켜 준다. 만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지능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걸음도 아직 떼어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오직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삶을 나누고 섞여 살 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질문

1. 당신이 게으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기도의 국면을 말할 수 있는가? 기도의 어떤 국면들이 가장 약한가? 가장 강한가?
2.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생활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 3.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삶이 편해지도록 기도하는가, 아니면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 4.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성경적 인물을 누가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
- 5.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나누어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참고]

중보기도

무엇이 중보기도인가?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So restoring one to fellowship with God should always be the purpose of intercession.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모세의 예를 통해서 한 가지 대답을 찾아 볼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위해 중보기도 했다 (출 32:20). 속죄라는 단어는 덮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자와 범죄를 당한 사람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덮는 은혜의 행위와 관련된다. 즉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항상 중보기도의 목적이다.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왜 우리는 중보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 ◆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 ◆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 ◆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형제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 ◆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p>[제 5 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리스도의 총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라</p>
<p>핵심본문 엡 4:1-16</p> <p>배경 엡 4:1-16</p>	<p>학습 주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총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p> <p>탐구 질문 당신은 최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란 부분이 있는가?</p> <p>학습 목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권면한 가치있는 삶을 묘사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낸다.</p>

들어가기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에 분명한 교훈과 주의 깊은 양육을 줌으로써 두 무리가 불신과 적대감의 역사를 극복하도록 했다.

어떤 의미에서 새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해 지도록 돕는 일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시작했던 내용이다. 이전 장들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몇 가지 의미있는 통찰력을 설파한 후, 바울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나갔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 수준 높고 혁명적인 진리들을 처음으로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교훈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르심의 가치 (4:1-6)

본문은 그들의 “부르심” 혹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전함으로 시작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 반응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엡 1:11-14). 의심할 것도 없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면해주셨던 다마스쿠스의 길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행 9:1-6).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주셨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요청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존경하고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1-2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씨줄 안으로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것을 강조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새로운 한 사람으로 되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은 그들 자신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8-9절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관대하게 생명을 주셨다면 순종, 성장, 진지함으로 그 선물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러한 가치있는 삶의 목표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엡 4:3). 이 사명은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4:2)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우리는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통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시는 중에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랐다는 것을 기억하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떤 것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 (요 4:9).

에베소서 4:2절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의 하나 됨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을 주목하라. “겸손”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온유함”은 우리에게 끼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종종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온유한 태도는 성경에 풍성하게 나타난다.

“오래참음”은 이 세상의 불관용과 참을성이 없는 반대어를 묘사한다. 모욕과 상처를 접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한다.

“사랑”은 다른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중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본질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련된 특성은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신약성경 기자들은 다른 세상의 책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어 “아가페”를 사용했다. 이는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심지어 가족들 간의 사랑과도 다른 것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 주심을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신 영이다.

이러한 위대한 본질들이 교회에 흐를 때 그 결과는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이다.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겸손, 온유함,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바뀌어 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 됨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그들의 교회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얼마나 보여주려고 하는 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유대인 교회도 없었고, 이방인 교회도 없었다. 오직 믿는 자들의 교회만 있었다. 주님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됨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한 진리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말씀을 읽는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갈 3:28-29)

우리를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은사들 (4:7-12)

이 부분은 신자들의 필요한 인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신 은사들로 주제가 옮겨진다. 바울은 시편 68:18절을 인용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고대의 어떤 왕의 치적에 대해서 말한다. 왕은 포로들을 잡았고 성 언덕에 그들을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끌고 행진을 하면서 패배한 백성들의 몸 값, 혹은 선물을 요구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승리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삶에 필수적인 것을 나누어 주신다. 인간의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 체험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승리 가운데 “승천”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의도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다 (엡 4:9). 그는 은사들을 주셔서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과 삶의 하나 됨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해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여정을 돕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은 네 종류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사도들” 부터 시작한다. 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이다. 바울은 항상 스스로를 항상 사도로 여겼다.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기적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두 번째에 나온 지도자는 “예언자들” 이다. 예언자란 일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언자들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전도자” 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전도인들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사와 교사” 를 묘사했다. 두 용어는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두 가지 기능들을 묘사하는 것 같다. 목사와 교사는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시키는 임무가 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일이다.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엡 4:12)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주의깊게 주목하라.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 (4:13-16)

바울은 교제에 있어서 하나 됨의 주제로 돌아감으로써 이 부분을 정리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에 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주님과와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해질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억지로 똑같이 하는 하나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교회의 비유를 기억하고 그 비유대로 살아갈 때 가장 고상해진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모든 신자가 은사, 재능, 재주, 그리고 기회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의 사명은 성취될 수 있다.

적용 및 실천

우리는 교회의 하나 됨이 시험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길을 따르는 유혹을 받는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회중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제, 격려, 그리고 양육을 새로운 방법으로 강조하곤 한다.

수 십 년을 사역해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순간들 중의 하나는 아파트 소유주와 입주자들; 감독과 일꾼들; 경영과 노동;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백인,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남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을 보았을 때이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사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만들어진다. 실수 하지 말라; 이 다리들은 종종 갈등과 거부가 생긴 뒤에 만들어지곤 한다. 깊이 뿌리박힌 습관과 편견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성령의 하나 됨의 증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질문

1.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당신의 영적 성장에 가장 커다란 도전인가?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더욱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2. “이방인” 과 “유대인” 의 개념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 어떤 이슈들이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가?
3. 당신의 개인적 사역을 감당하는 할 때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혹은 어떤 방법들인가?
4.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볼 때 사랑과 은혜의 사역에 의해 어떤 식으로 복을 받았는가?

[참고]

침례교 세계연맹 (The Baptist World Alliance)

1904년, 미국과 영국의 침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경험되어지는 하나 됨을 증거 하기 위해 온 세상의 침례교인들을 모으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러한 비전하래 1905년 최초의 침례교 세계 총회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침례교 세계 연맹은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계속 성장해서 200 개 이상의 총회와 연합들을 아우르게 되었다.

세계 각 처에서 침례교 세계 연맹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관습, 인종,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놀란다. 그들은 모두 한 주님을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언어, 옷, 그리고 예배의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소리와 마음이 하나되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모습은 정말 감격스럽다. 그곳에는 스릴 넘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모든 신자들의 하나 됨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라.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왜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라.

이러한 분리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구하라.

<p>[제 6과]</p>	<p>인도를 따라감</p>
<p>핵심본문 에베소서 4:17-5:2, 11-16</p> <p>배경 에베소서 4:17- 5:20</p>	<p>학습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p> <p>탐구질문 자유로운 오늘날의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우리가 배운 크리스천의 행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이번 과에서 공부할 내용이 나의 삶에 가장 큰 도전을 심어주며, 그렇게 실천할 것을 다짐 하자.</p>

들어가기

바울은 이방인의 생활 지침대로 살아온 새로운 신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살도록 허락할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변화시킬 것을 도전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동아프리카 나라에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청지기에 관하여 소그룹을 인도하러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청지기의 직분은 금전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여행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을 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이 적었다. 크리스천들인 그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이란 삶을 새롭게 사는 것을 깨달은 것, 그 이상이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 강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헌신을 증명해 주는 산 증인이다.

이번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이방 문화에서 자란 자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믿음이 윤리의 종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공부하고 따르며 오늘날의 이슈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세대를 위한 일이다. 현대의 설교자들과 교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도전을 던진다.

첫째로 크리스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율법화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이슈들을 상대할 때 너무 상세한 법과 규정을 다 알고자 할 때가 있다. 그것은 일 세기 때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에서의 실패했던 바와 같은 내용이다.

둘째의 도전은 크리스천의 자연적인 윤리를 아는 것을 줄이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계시판의 적혀있는 문구나 주차 차량 딱지와 같이 단순하게 다루지 말 것이다. 그것은 마치 복음의 능력이 삶을 바꾸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 실천과 같이 다루는 것과 같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활은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다. 이 생활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저자는 크리스천이 된 새로운 신자에게 옛 습관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을 도전하고 있다. 바울은 그러나 인간 내면에 단순히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인 관습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 옛 습관을 떠나라. (4:17-24)

에베소서 4:17절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지 말 것을 호소한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자들은 “이방 사람” (에베소서 3:1)이라 불렀던 자들이다. 17절에서 “이방 사람”이란 유대인이 아닌 자, 그 이상을 뜻한다. 우리는 이방인을 묘사하기 위해 이교도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그들의 삶과 가치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종교적인 관습에서 비롯해 형성되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12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옛 습관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라 예수님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예정하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 (4:18)” 때문에 진리를 몰랐다. 이 구절에서 쓰인 “무지” 라는 단어의 전형적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29-30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바로 상황들과 시대에 의해 눈감아 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이 나타내는 바는 선한 행동을 하기 원하는 경향을 물리치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한다. 선한 것을 멀리하는 결과로써 결국은 악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의 감각을 잃고” (에베소서 4:19), 그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몇몇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신론자의 생활을 살기 원한다.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그들의 생각에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을 지라도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수치의 감각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믿기 쉽다.

우리는 시편 1:1절에서 부도덕을 쫓아가는 길을 기억해 볼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며, 결국은 그들의 생각을 즐거이 하며,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며” (에베소서 4:19) 이교도의 길은 계속해서 “부도덕” 한 삶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은 나열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선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남들을 타락하게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걸었던 길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러워진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배우며 생명의 새 삶을 걸어가기 위해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살기 (4:25-5:2)

“모조” 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모조” 라는 단어는 마치 진짜를 흉내 내는, 가짜의, 인공의, 모조품을 가리키는 느낌이 든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데 있어 “하나님을 본받는 (5:1)” 자가 되어야 한다. 모조품처럼 마치 어떤 삶을 흉내 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새롭게 흥미진진한 발견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새롭게 믿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들인 자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배웠던 근본이 되는 다음 구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2:8-9) 4과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준다. 다음을 생각해 보자.

믿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4:25)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신용을 둔다. 그런데 만약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알 때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된다. 성경은 심지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과 말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한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4:26) 누구나 기본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짓는데 까지 이르도록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지혜롭게 대면하고 그것을 처리 할 줄 알아야 한다.

4:28절은 부정직하게 살았던 행동을 떠나, 수고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을 것을 말하고 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랑 할 수 있을까? 이런 삶들은 예수님의 영이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4:29)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는 힘을 가졌음을 꼭 기억하자. 이 구절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한다. “다른 사람에 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말하지 말거라!” 더럽고 음란한 말을 하는 이 세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의 말 가운데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써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31절에 이렇게 나열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32절의 나온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크리스천들이 걸어야 할 길이 단순히 훈계와 지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길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 드림으로써,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라고 도전했다. 이제 더 이상 윤리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자. “사랑을 받는 자녀들” (5:1) 은 “사랑 안에 살면서” 값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을 나타내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 (5:11-16)

이 과의 시작부터 저자는 세상으로부터 아예 따로 고립되라고 권면하지 않았다. 대신에 저자는 종교적인 관습과 생활에 빠져있었던 이방의 문화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새로 믿게 된 자들에게 생명의 새로운 길을 가야 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원했다.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 하셨던 “빛” 과 “소금” (마태복음 5:13-1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힘에 대해 증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보여준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또한 크리스천들에 관해서 듣게 되는 단 한 가지 길은, 성실과 긍휼함의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길이기도 하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줌이 더 강하다는 옛 말을 떠올려 본다.

에베소서 5:14절에서 나타난 짧은 시는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빛의 이미지는 이방인의 삶의 어두운 길과 종종 비교된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강조함은, 에베소서 5:16절에서 다음의 결말에 이른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얼마나 많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적용 및 실천

몇 년 동안 나는 복잡하고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관계의 특정 종파의 교회에서 자리를 맡아 섬겼던 적이 있다. 거친 말을 자주 내뱉고 서로 갈등으로 얽힌 신도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해결되었어야 될 오래전의 이슈에 대한 노여움은 회중들을 성장하게 했다. 사람들은 서로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의 주장이 이기기 원했다. 야비한 말은 다시는 회복 되지 못할 깨진 관계를 남겼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다. 리더쉽의 역할이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모임 가운데 투표를 이끌거나,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증거도 이와 같다. 절망적이고 무감각한 세상에 효과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질문

1. 이 과에서 언급한 “어두움” 과 “빛” 의 이미지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2.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일하여 하나님을 따라 사는 행동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3.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26절에 나온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4. 이번 과에서 공부했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고

하나님을 본받음

그리스 단어 *minimesis* 는 에베소서 5:1절에서 첫 세기의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들렸을 “본받는 자” 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많은 분야에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웅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모범적 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반복하는 것을 포함했다. 누군가가 웅변가가 되기 위해 훈련 받고 싶어 했다면, 그는 뛰어난 웅변가를 찾아 그의 행동과 기술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라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패턴인 것이다.

크리스천 기준에서 살기

교회에 들린 어떤 여자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교인 중 한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 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만,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들은 기준에 맞춰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조언 해 주겠는가?

<p>[제 7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에베소서 5:21-6: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에베소서 5:21-6:9</p>	<p>학습주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며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p> <p>탐구질문 크리스천의 믿음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p>학습목표 가족 관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질서 있게 세워진다면, 어떤 다른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 보자.</p>

들어가기

가족 관계는 본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과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본적인 요소들인 사랑과 존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함께 모였던 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 될 것이다. 단합이 강한 가족들은 특별한 기념일을 잘 기억하며 챙기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한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웃음과, 추억을 함께 듣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심지어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가족과 함께한 다는 것은 희망과 새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간증이 된다.

이런 가족들은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 하나로 뭉친 가족 관계는 강한 바탕 위에 견고 하게 세워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크리스천 가족에게 성경적인 기초를 쌓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이 한 가족 한 가족에게 가장 강한 힘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1세기의 가족들

이 과에서 우리는 1 세기 가족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성경을 해석 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소아시아의 새로운 크리스천들은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건강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곤 했다. 문화적으로, 또한 법적인 제도에서도 남편은 가족의 머리가 되어야 했으며, 그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같은 기준을 가졌던 크리스천들은 1 세기 가족 개념의 동등성을 표현할 줄 아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나아가서 1세기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라서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을 것이라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해소해야만 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해소하기 원했고 또한 믿는 자들의 삶이 강하고 안정적이고 질서가 잘 세워진 가정임을 함께 공유하기 원했다.

이 과의 배경은 이러하다. 당시에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며, 주인은 종을 다스리는 시대였다. (에베소서 6:5-9) 1세기의 가정에 종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였을 테지만, 우리는 노예를 삼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님을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워 알고 있다.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가족들의 생활은 많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요즘 시대에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결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의 가정에 관하여 알아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인도를 각각 다른 문화에 적용하기 위한 주의 깊고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 구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들이 이뤘던 안정적인 공동체의 사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 관계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은 모든 관계에 관하여 적용 될 수 있다. 이 과는 5과에서 다른 교회 안의 행동에 대한 구절을 연이어 다루고 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정하신 대로 빛의 삶을 살며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

모든 크리스천 관계들의 바탕 (5:21)

이 성경구절은 앞에서 설명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크리스천의 삶과 가족 관계에 관해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5:1-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찬양함은 교회 안의 믿는 자들의 특성임을 볼 수 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21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는 바울의 글 속에서 종종 관계 안의 겸손의 영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쉽다. 그는 로마서 1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지체를 세우는 것을 권면하기도 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세로 서로를 세워 줘야 하는 바탕인 것이다. 자만과 독점하려는 경향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존경하는 자세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억할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다. 바울이 언급한 가족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하여 말한 것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남용될 것을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은 사랑과 감사의 관계형성을 시작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은혜를 누리며 축하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믿는 자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며, 결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복종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같아야 함은 가족의 삶을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긍휼함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속죄된 결속을 놓치는 것은 크리스천 가족의 영이 마치 관계가 없는 외국 사람처럼 대하여지는, 오만한 자세를 날게 할 수 있다.

남편들과 아내들 (5:21-33)

최근에 믿는 자들 안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가족 안의 누가 더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열띤게 벌어졌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물론 아내와 함께하지만) 가정에 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에베소서 구절에서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다른 이들은 아내들에게 남편들과 동등하게 결혼생활을 주관하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3:28절을,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슈에 관하여 명확하게 제시된 답을 성경 안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가 발견할 수 있다.

상호관의 복종하는 개념을 5: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충고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들은 모두 믿는 자들이며 크리스천으로써 부부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며 옳은 길로 인도받기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충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로 떨어 질 수 없듯이 서로 에게도 그렇게 결합할 것을 헌신하며, 단순히 구경꾼 이상으로 교회와 의 결속을 이룰 것을 말한

다. 교회안의 남편들과 아내들의 관계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들에게 같은 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 (5:22-24)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에 의한 기쁨에서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로 그녀의 마음의 최고의 관심사로 둔 남편의 인도를 기쁨으로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복종이라는 그리스 어는 하위의, 열등을 느끼며 복종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존경할 가치를 느끼는 복종함으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아내를 다스림에 있어 독재자처럼 복종하게 하지 않도록,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같은 종류의 경외함과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5:25-30) 이 말은 사랑의 관계에서 바탕이 된 결혼이 아닌, 1세기의 문화적 배경에서 살았던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이었다. 남자들은 아내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했고, 기업을 잇게 했으며, 또한 남편의 이름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크리스천 결혼생활은 그 당시 문화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 남편들과는 사뭇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졌다. 이 완벽한 사랑의 본보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5:2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학대받은 가족들을 위한 보호소는 많은 도시들 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 그 곳들은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고통을 겪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 해 준다. 병원의 응급실이나 보호소에서 온몸의 멍이 들고 상처 난 아내들을 볼 때, 크리스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원리가 되지 못한 아픔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 준다.

28절은 남편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몇몇 사람들은 육체를 최악으로 여겼고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바울에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교회안의 인간관계를, 특히 결혼을 지지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이 가져오는 새 삶의 본모습을 보여 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크리스천 커플들은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중요하게 존중할 것을 반드시 다짐해야 한다. 어떠한 결과에 이르든지,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관대하며, 교회를 향하여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 하는 것이 그들의 인도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결코 학대, 무관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한 파트너의 두 크리스천들은 서로를 위해 존경을 나타내는 관계를 보인다.

사역의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많은 멋진 커플들을 만났었다. 그들은 자녀를 잃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직장의 변화, 질병, 실망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와 만족을 발견했고,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더욱 강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들은 서로를 향해서 보여준 인내 안의 풍부한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강해진 것이다.

크리스천 가족의 자녀들 (6:1-4)

자녀들이 반드시 그들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했던 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의 명령”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절)인 구약 성경의 권위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에베소서 6:1절은 이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이 땅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거나 부모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책임감을 가지며 순종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사랑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어린 자녀의 위치 안의 순종함으로써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머리가 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남편들과 아내들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리더십은 단순히 힘과 권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가정 안에 크리스천 아버지의 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 자녀들의 미래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은 바울의 말을 더욱 강조 해준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울은 잔인하고 생각이 없이 자녀들을 다룬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런 방법들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적용 및 실천

그리스도의 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가정안의 관계가 세워짐의 바탕이 된다. 크리스천 가정은 사랑과 은혜의 환경 속에서 세워진다. 그것은 온 가족 구성원이 믿음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증인으로 성숙하게 함을 볼 수 있게 한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 문화 안에서 가족의 삶이 심한 긴장과 피로 아래 있음을 부정한다. 매우 바쁜 일정들, 경제적 압박,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가족들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그 압박들 안에서 따뜻함과 사랑스런 관계들을 적용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의 삶은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시작 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더욱 멀리 퍼진다. 변화된 삶은 믿음의 가정을 갖게 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의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웃들과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과를 공부함에 있어 당신은 배우자, 자녀들,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며 살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며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서로를 사랑하며 후원하는 관계들을 형성하는 곳에, 가족 관계에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질문

1. 당신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생각 해 보라.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가족이 1세기의 상황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의 내린 가족의 삶에서 사랑과 존경을 보여줄 수 있는 지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자녀가 없는 커플들이 오늘의 공부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가족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
3.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삶이 어떤 질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느끼는가?
4. 가족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미 당신의 삶의 일부부가 되어버린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보자.

참고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 언어에는 다양하고 미묘한 뜻을 가진 단어들의 종류가 많다.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영어에서 사랑 이라는 단어 한가지로 번역되었다. 바울이 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의 종류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은 매우 관대하며, 서로의 필요를 항상 살피며, 서로를 돕는 것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하여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할 것을 요구로 했다. 이기적이지 않으며, 참으며, 친절하며, 용서하는 사랑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었다.

싱글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을 위한 도움

십대의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 맘이 첫째 딸의 행동에 대한 고민을 당신에게 털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녀는 딸의 분노와 존경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털어놓았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단원에서 다른 것과는 다른 상황인 이 가족의 어머니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는 무엇이 있을까?

단원 2 : 빌립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두 번째 연구 자료는 빌립보서이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다 (그리스 북쪽과 오늘날의 마케도니아 지역). 바울은 이곳에 몇 년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었다 (행 16:11-40절을 보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빌 1:12-1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빌립보서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다. 바울의 삶에 흘러넘치는 기쁨, 만족, 온유, 건강이 편지에 스며들어 있다. 빌립보서에 대한 연구인 본 단원의 과목들은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보다 더 깊은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단원 2. 빌립보서

제 8 과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 봄	빌립보서 1:12-14, 19-26
제 9 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감	빌립보서 2:1-11
제 10과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 함	빌립보서 3:1-14
제 11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4-20

<p>[제 8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봄</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빌립보서 1:12-14, 19-2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빌립보서 1:1-26</p>	<p>학습주제 영원한 삶을 바라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인생에 최고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p> <p>학습목표 바울의 경험과 같이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들어가기

감옥에서 바울은 그의 고통에 상관없이 그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쳐졌음을 고백했다. 바울은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 것이다.

나는 나의 친한 친구의 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날 Owen Leech는 림프종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는 운동선수이자 코치였으며, 그와 그의 아내 Dot의 슬하에는 이제 갓 6개월 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었다. 암을 진단받았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그에게 남은 생은 단지 6개월이었다.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곳곳이 살아갔으며 삶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살려, 그는 여러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기도 했다. 그를 아는 그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감탄하곤 했다.

몇 년간의 암과의 싸움을 이겨나갔음에도, 그의 목에 있는 암 종양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를 마비시켰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Owen의 교회 성도들은 그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그 주의 주일날 그는 활짝한 얼굴로 교회에 왔다. 매주 그는 그의 교회 식구들과 예배당에 앉아 예배에 참석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도 노래를 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으며 예배에 참석하였다.

Owen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암이나 시한부의 병보다도 더 강하시며 위대하심을 나타낼 간증을 준비하셨다. 오래 전에 그는 6개월이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보다 더한 27년을 더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Owen은 그의 삶의 역경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 놀라운 주님을 간증하였다. 이는 그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기쁨은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종종 나타나는 핵심 주제중의 하나였다. 그는 기원전 62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빌립보서 2:30; 4:18). 바울은 대부분의 성도가 이방인이었던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적었다. 빌립보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나누었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장려하였다. 그는 인생의 포인트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 즉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나누었다.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다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울은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궁극적인 주님의 기쁨은 하나 됨의 목적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 두기 원했다면,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21절) 라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의 놀랍게 진보 된 복음 (1:12-14)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감옥에 매여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1:12). 심지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1:13). 게다가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14). 이러한 모든 소식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격려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을 것이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은 긴 스토리를 수반한다. 감옥에 앉아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감옥에서까지 당신의 신을 찬양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해보지요.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몇 년 전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그 때 나는 이방인을 유대 성전에 들여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고소를 당했다고. 그 결과 유대 폭도들은 내게 매질을 가했고 나를 죽이기 원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로마 군병들이 도착해서 그들을 멈춰주었다고. 군병들은 나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관습을 쫓아 나를 채찍질 하고 그들의 막사의 있는 감옥에 나를 가두었다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매우 당황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을 행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벌을 가했기 때문이었지요.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의 소란 때문에 글라디우스 천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었기에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나를 보내었소. (사도행전 22-23)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 하기 까지 벨릭스는 이 문제를 끌며 나에게 돈을 받을까 바랐다고.

아그립바는 나의 체포된 모든 상황들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광스런 복음을 들었다고. (누가복음 21:12) 그는 내가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놓아줄 수 있었을 것이라 하였소. (사도행전 25:11-12; 26:32)

결국은 내가 로마까지 향해 하여 오게 된 것이라오. 배가 파선되고 독사에게 물림을 포함하여 많은 고초를 당한 후에, 나는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사도행전 27-28) 아이러nick하게도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러 로마에 오길 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 이러한 모험을 겪게 하실 것이라고는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바울 (1:19-21)

15-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빌립보서 1:18) 예수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길 원했다. 거짓 동기에서 부여된 선생들은 “외모적”으로 가르쳤지만 참된 선생들은 “참으로” 가르쳤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다.

1:19-26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이 그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았다. 19절과 25절에서 바울은 oida 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9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는 그의 갇힌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19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임을 알아 챌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 하였다.

1:19절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라는 구절을 살펴보자. 70인역 성서(Septuagint)에 의하면 (바울이 살던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읽혀졌던 그리스 번역의 구약성서) 이 구절의 단어는 욥기 13:16절에 나타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들의 모국어가 그리스어였음을 고려 해 볼 때 70인역 성서를 읽는 것이 아주 보편 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욥의 고난의 경험들과 그의 최종적 변호와 같이 그의 생각을 나타내길 원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 그의 상황으로부터 갓 구해 진 것처럼, 바울 역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었던 것이다. 바울의 “나는 ~입니다.” 의 확신의 말은 구약 성서에 근본을 둔 말이다.

바울은 결국은 그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욥의 말들을 인용하였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이 땅에서의 구원일지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일지는) 빌립보서 1:20절에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한 가지 확신 했던 바는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했던 사실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최우선에 두었던 바울 (1:21-16)

어느 누군가는 바울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었는지 궁금해 할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통적인 요소였듯이 모진 환경들 아래 인생을 사는 것에 지쳤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1:21) 그리스어에서 바울은 “나에게는” 이란 단어를 문장의 가장 처음 부분에 두며 강조 하였다. 이는 바울의 깊은 심려 가운데에서 표현 됐음을 알 수 있다. 바울에게 삶이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바울이 경험했듯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세상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죽음이란 오직 이 땅의 모든 고투들이 끝나는 것을 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육체적 죽음 이후의 삶이나 그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이란 단순히 사람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투들이 끝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더 나은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겪었던 이 땅에서의 고투들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며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함에 불과했다.

22-26절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루고 있다. 그는 삶이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1:21 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수고” 라고 여겼으며 그 이유로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겼다.

바울은 25절에서 다시 한 번 그리스 단어 oida를 - “나는 알고 있다” 의 뜻-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는 빌립보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기 원했고 그들이 바울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하여 돕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재회 했을 때의 큰 기쁨을 예상 하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미래의 모든 자랑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적용 및 실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 심지어 고난이 올 때에도-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간다. 영원함의 가치를 두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의 상황들에만 너무 몰두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현재의 상황들 너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처한 당신의 환경들 너머를 볼 준비가 되어있는가?

질문

1. 바울은 어디에서 감옥에 갇혔으며 왜 갇혔어야만 했을까?
2. 14절에서 바울은 몇몇 성도들은 바울의 상황 때문에 더욱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3. 21절의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4. 예수님이 없이 삶을 사는 사람과 당신의 삶은 삶과 죽음의 관하여 어떠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5. 당신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자를 본 적이 있나?

참고

죽음에 관한 그리스로마인의 관점들

바울이 살던 당시의 이방인들은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Plato) (기원전 428-348) 는 죽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죽음이란 좋은 것이다. 죽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한 가지 상태는 죽는 자가 전혀 죄책감이나 양심의 찢림을 느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계로부터 다른 곳에 이르는 변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잠을 잘 때 꿈도 꾸지 않으며 잠을 자듯이 만약 죽음을 무의식하지 느낀다면 죽음이란 대단한 것을 얻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했던 얻는 것이란 단순한 의식을 각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바울과 동시대의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플루타르크는 (서기46-120)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인간의 혼은 죽음 이후에 새장에 갇혔던 새가 자유롭게 되듯이 자유하게 된다. 만약 인간의 몸에 오랫동안 간직 되어 왔고 오래된 습관과 여러 요소에 의해 길들여져 왔다면, 이 혼은 즉시 다른 몸을 차지하여 세상에 문제들을 날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 즉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p>[제 9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삶을 따라감</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빌립보서 2: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빌립보서 1:27-2:18</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주권아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p> <p>탐구질문 겸손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p>

들어가기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값진 삶을 살 것을 부탁했다. 그런 삶은 하나 됨과 겸손으로 두드러진 삶이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겸손의 최고의 본보기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했다.

당신은 겸손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그랬다. 나우웬은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십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였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노터데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그가 교육자로서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이 로마 카톨릭 학자는 여러 컨퍼런스에 유명 강사로 알려졌으며, 책을 저술한 작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쓴 유명한 책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서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다.

깊은 절망을 안고 그는 프랑스의 공동체에 가서 1년을 머문 후 6개월 동안 선교사로서 남아메리카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자들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인해 회복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그는 결국 프랑스의 공동체와 비슷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Daybreak)라고 불리는 공동체의 담임사제가 되는 초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담임사제로 재직하면서 나우웬은 그동안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작가, 연설가로 살았던 그의 삶과는 다른 간단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 동안 그는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예배 시간에 신음 소리를 내거나 침을 흘리는 자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의 삶 동안에, 나우웬은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준비를 도왔던 아담(Adam)이란 친구와 특별한 친구관계를 맺게 되었다. 어느 날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안시(Philip Yancey)가 나우웬에게 데이브레이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 담임사제로 봉사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나우웬은 안시에게 매일 아침 아담을 준비시키고 도와주는데 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씻기고 턱수염을 깎아주고 그의 이빨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아침 식사 때 보조해 주는 모든 단순한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마치 나는 목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다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매일 아침 아담을 돕는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 매일 아침 이빨 닦는 작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신학자로서 더 중요한 일들을-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우웬은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하겠다고 말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일들을 절대로 포기 할 수 없소. 그 이유는 우리의 친구 관계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을 얻는 자는 아담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우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자로 비춰질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좇는 길을 택했으며 그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그는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 된 공동체의 일부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경쟁적이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은 어쩌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로 비춰질지 모른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후로부터 로마

사회의 크리스천들이 겪게 될 삶의 변화를 익히 알고 있었다(빌립보서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다면, 서로를 향한 겸손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었을 것이다.

빌립보서 1:27-3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삶을 살기를 권면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는 삶과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공동체의 멤버들로써 서로를 향해 겸손하게 섬겨야 했을 것이다.

빌립보서 2:1-11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5-8절을 보면 성육신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겸손하게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설명이 나온다. 크리스천들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 될 것을 권면함 (2:1-4)

빌립보서 2:1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며 빌립보서 1장에 이어 2장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 전반에서 나타난 고통가운데서도 신실했던 바울의 모습과 특히 27-30절의 나타난 2장을 이어갈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으로 2장 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라고 나타나는 부분은 1장 27절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를 다시 한 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네 가지의 형태를 띠며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이라면 이라는 조건부의 형태를 띠며 나타난다. 우리는 ‘~있거든’ 이라는 조건부의 형태를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어에서의 이 조건 형태 법은 그 해석의 의미가 불분명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리스 언어에서는 조건 형태법이 긍정의 의미로 추측되어 진다. 아마 우리는 1, 2절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다고 생각하니, 부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누릴 것을 원했기에 그들에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한 것이다.

뜻을 합하는 것은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믿는 자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빌립보서 2:2절). 바울은 만약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의 기쁨은 곧 빌립보 성도들에게 쏟는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뜻했다.

2절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가 됨을 뜻함이 아니었다. 모든 신자들은 삶과 믿음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바울이 사용했던 “같은 생각” 이 뜻하는 그리스 원어는 믿는 자들의 감정,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같은 태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이 사용했던 뜻을 합하라는 그리스어는 sumpsuchoi 였다. 이 단어는 아마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일

가능성이 높고 한 마음을 가진 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1:27절에 나타난 *mia psuche*란 단어와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 또한 한 정신 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맞게 생활하는 것은 마음, 생각, 감정, 지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 됨은 뜻을 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2:2).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태도의 하나 됨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빌립보 인들은 1:15-17절에 나타난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와 같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권면 받았다 (2:3). 믿는 자들은 교만하거나 자신의 영예를 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2:3절),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겸손 (2:5-8)

바울은 그리스도를 겸손의 본보기로 표현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를 지닐 것을 권면했다 (2:5). 이어 나오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겸손을 묘사하고 있다.

학자들은 6-11절을 보통 찬미의 글인 찬가로 간주한다. 이 찬가의 기원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인가? 이 글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알려 졌던 것인가? 혹은 바울의 의해서 쓰인 기독교적 고대 노래인가? 하는 내용들이다. 이 찬가의 기원이 어떤 것이던 지간에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녀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는 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본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시한 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하셨을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셨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 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주장 하실 수 있는 그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것이다 (2:7절). 기억할 것은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지 그의 본질이 아니었던 점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을 때” (2:7) 하나님이 되기를 멈추셨던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종의 겉모습을 지니고 오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 세기의 노예들은 특별히 구분되는 겉모습을 가지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음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근본적인 섬김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중심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있었다. 흥미롭게도 고대의 십자가는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으며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지니셨다. (“수치스런 십자가”를

참조하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셨기에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오직 자발적인 순종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일 세기 지중해 지방의 가장 수치스럽던 죽음이던 십자가의 길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며 걸어 가셨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경멸당하던 사람의 모습을 취하심을 뜻했다.

8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관해 설명했던 것만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 그리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8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정하여 말하여 단순한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까지 견디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기보다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최고의 겸손을 보여 주신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성도들의 겸손의 본보기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그리스도 (2:9-11)

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자율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을 지니셨다(2:9절). 일 세기 지중해 지역에서 사람의 이름, 명성 또는 지위는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명예와 지위를 갖추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극도의 수치로부터 가장 높은 영광으로 높이셨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2:10절).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알고- 수치를 당하셨고 영광 가운데 부활 하신 분- 그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2:11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들의 주권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2:11).

적용력

빌립보서 2:1-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하나 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다.

이 행동들은 겸손을 요구한다. 우리는 겸손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람, 심지어 성기는 자가 되셔서 가장 낮은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결코 혼자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한다.

질문

1. 수치를 당하신 자를 따르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2. 로마서 1:16절 상반절에서 나타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와 연관시켜 빛을 비추신 빌립보서 2:8절에서 느낄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3. 예수님을 따르는 누군가의 삶에서 겸손을 느껴 본 적은 언제인가?
4.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겸손하여 더욱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겸손함은 훌륭한 리더의 재능과 자질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가?
5. 이번 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

수치스런 십자가

십자가는 고대 아수르, 페니키아,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불복종하는 노예들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창피를 주고, 위협하려고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십자가는 노예들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일세기 경에 로마인들은 사형에 처할 만한 노예들이나 강도행위나 반역을 저지른 하위 계층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십자가의 달리는 자는 공중 장소에서 발개 벗은 모습으로 그의 몸에서 유체가 흐르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했다. 십자가의 달렸던 자가 죽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의 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고 만약 요구 한다면 가족 전체에게 수치가 되는 일로 간주 되었다. 그래서 보통 그 시신은 공동 무덤에 던져 지곤 했다.

십자가는 보통 나무에 매달림을 뜻한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시체가 때때로 나무에 매달려지곤 했는데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 나무에 매달린 시신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되었다(신명기 21:22-23). 특히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의 달린 자와 연관이 있던 자는 천한 노예로써 사형을 당하고 저주받은 시신으로 버려진 자와 연관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수치를 당하곤 했다.

겸손

결과적으로 축복 받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은 거짓된 겸손이다. 참된 겸손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법이다.

<p>[제 10과]</p>	<p>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함</p>
<p>핵심본문 빌립보서 3:1-14</p> <p>배경 빌립보서 3:1-14</p>	<p>학습주제 신실하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삶의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이다.</p> <p>탐구질문 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립하도록 하자.</p>

들어가기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유대 크리스천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가치를 반박했던 전형적인 자들이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열렸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아마도 데렉 레드몬드(Derek Redmond)의 준결승 장면이 열리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데렉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길 꿈꿔왔었다. 데렉의 경기능력은 아주 뛰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400미터 육상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믿었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왔다. 그는 준비 자세를 취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총 소리가 울리고 모든 선수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데렉은 200미터 지점까지 경기를 잘 소화해내고 있었고 그가 뛰어난 선수임을 입증했다.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꿈이 실현 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찌를 듯한 고통이 그의 다리를 죄어왔고 그는 속도를 늦춰가며 트랙을 돌고 있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런 상해로 간주되는 슬와근이(膝窩筋) 파열되었던 것이었다.

매 10초마다 데렉의 꿈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의료 지원 스태프가 그를 돕기 위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데렉은 그의 다리 전체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의료 지원 스태프를 뒤로 하고 다시 그의 발을 내디뎠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도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결국 그는 넘어졌고, 의료 지원 스태프는 그를 수송해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데렉은 경기를 끝마치기로 결단하였다! 그가 도착점에 다다르려 할 때 그는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경기장 관람석에서 뛰어나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말했던 데렉의 아버지였다.

이를 다시 한 번 꼭 물고 그의 고통을 참으며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 그러나 저는 해내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는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경기를 끝내자꾸나.”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느낄 때 데렉은 주춤했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트랙을 돌기 시작했을 때, 칠만 여명의 관중들은 한 육상 선수의 꿈이 이루어 지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관중들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모든 상황을 다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데렉과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칠만 여명의 모든 관중들은 일어나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데렉은 그의 부상의 순간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세상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어떤 한 손이 내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려 노력하며 애쓰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달리는 자의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데렉 레드몬드의 인생의 목표와 뼈아픈 경험이 담긴 인생 이야기는 빌립보 성도들이 인생의 도착점에 다다르기까지의 겪게 되는 많은 분투노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가 그의 목표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는 강옥에 갇힌 것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고투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맞서 싸웠고 더 나아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실의 빛을 전하였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의 겪는 고투를 잘 이겨나갈 것을 격려하며 그들도 바울과 같이 잘 이겨내길 원했다. 도착점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질수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알아 가길 원했고, 그것이 또한 그의 가장 귀한 상급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의 가치들 (3:1-6)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주로 다루었던 교회의 하나 됨과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가지는 주제에서 약간 바꾸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주제의 변이는 고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여러 번역의 영어 성경들은(NASB, NRSV, NIV, KJV) “끝으로(finall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3장 1절을 시작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의 결론을 맺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끝으로” 라고 자주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인 *loipon*은 1절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라고 번역됨이 더 자연스럽다. 거기다가 *loipon*은 빌립보서 4:8절에서 다시 사용되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3장에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은 3장 1절 전반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권고로 주제의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권고는 2:17-18절에 나오는 권고를 상기시켜 준다. 2장 17-18절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격음과 빌립보 성도들로 그는 기쁨을 누리며, 성도들도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권면하였다.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누리려고 함이 마땅하였다.

다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미 몰래 속해 있을지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3: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면서 감정적으로도 호소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절에서 바울은 “조심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하였다. 그는 거짓선지자들을 일컬어 “개들”, “악한 일꾼들”, 그리고 “거짓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라고 말하였다. 개들은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며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함을 뜻한다. 바울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일컬어 “악한” 일꾼이라 불렀으며, 그들이 행하는 일은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일임을 뜻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안에 “거짓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자들을 포함시켜 말하였다. 바울은 그리스어인 *katatome*를 사용하였는데 할례는 *peritome*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peritome*은 무엇인가를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조롱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바울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참된 할례란 마음에 있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어떠한 다른 종교들이나 사회적 할례들이란 바울에게 단순히 절단 하는 형태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놓쳤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시작 했을 때,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도 대적 자들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회하며 교회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할례와 같은 구약 성서의 관습을 가르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라고 유혹하였다. (3:10-11절에서 바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참조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며 참된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영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향 즉 “육신 안에 신뢰를 둠” 을

비난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육신 안에 있는 신뢰를 둠”으로 구원이 보증되었다는 선민의식을 주장하였다면, 바울은 그보다 더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바울은 “육신 안에서” 내세울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5절에서 그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며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유대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자임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그는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 그로 또한 매우 열성적인 유대인(3:6)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유대교에 있어 순회하던 유대교 기독교도 선생들보다 바울이 훨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바였다.

십자가의 가치 (3:7-11)

7절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두는 것들과 -심지어 종교적인 것도 포함하는 (3:5-6절) - 가장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비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겼다. 한 때 바울이 그의 가치의 신뢰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그의 삶에서 다른 모든 가치들의 중요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게 만들었을 뿐이다.

7절에서 “나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분이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현재 시제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시제로 표기되었다 함은 과거의 행동들의 중요성들은 이미 끝나고 현재 행동들의 중요성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다마스쿠스 길에서의 회심을 통해 바울은 그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을 십자가의 가치와 바꿀 것을 결단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9:8).

빌립보서 3:8-11절은 7절에서 바울이 잃은 것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내 삶에서 왜 모든 가치들을 바꾸게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말하지요.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의 신분이나 그의 개인적 업적과 성취를 잃은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겼다.

몇몇의 학자들은 8절에서 말하는 “아는” (그리스어로 *gnosis*)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종교의 형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의 지식은 대부분 (*gnosis*의 이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지식을 뜻함으로 여겨진다. (출애굽기 33:13절을 보라) 바울은 이전 것들을 단순히 “잃은” 것들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잃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매우 진귀한 가치와 비교하여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겼던 것이다.

빌립보서 3:9절에서 바울은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명백한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바울이 왜 10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기록하였는지 궁금해 할지 모르겠다. 다마스쿠스 길에서 회심 한 이후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하게 알아 가길 원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앎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3:10)은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성숙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10절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타나내야 함을 표현한다.

구약 성서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이었다. 나이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통에 동참하였다 (사도행전 14:22).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바울이 순교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아니다. 도리어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기회로 여겼다. 바울은 더 깊은 친밀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적 세상적인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원했다. “본받다”라는 시제는 수동태이다. 수동태란 어떤 것이 누군가에 의해 행함을 당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에게 그 일이 행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행동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가 10절에서 말했던 요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사도바울은 몸의 부활이 일어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에서 11절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 몸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과연 바울의 행동에 의해 그의 영원한 삶이 보증된다는 뜻일까? 11절에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한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이 구절의 단어는 *eipos*인데 이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표현 방법이다.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이나 혹은 그가 죽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부활에 참여할지 생각했던 바가 아니었을까? 빌립보 서신서만 살펴보자면 그리스어 문법적으로 3:11절은 1:23절과 3:9절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미래의 그의 부활의 참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순교자가 되거나, 다른 형태의 죽음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살아있는 방법이던지 어떤 방법으로 부활에 참여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1:20-26절을 보라).

가장 높은 목표의 가치 (3:12-14)

11절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 가는 것임을 표현했다. 12절에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직 그것을 완전하게 알아가지 못했다고 보인다. 아마도 빌립보의 거짓 선생들과 같은 그의 대적 자들은 자신들은 그 완전함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을 지도 모르겠다. 바울은 이러한 대적 자들의 교만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오직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가진 자만이 이러한 완전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는 주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야 하는 자임을 겸손히 깨달았던 것이다.

13-14절에서 바울은 그의 진정하고 참되며 성숙한 믿음을 찾기 원하는 그의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 고대 운동 경기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경기들에서 달음질 하는 자들은 경기선에 줄을 서 있다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며 지정된 골인 점에 도달하는 것이 경기의 원칙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달음질과 그로 인해 완전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바울이 인생의 달음질을 전진하며 나아갔던 방향이 되었다. 그는 경기 도중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실제 경기에서 만약 선수들이 뒤를 돌아본다면 귀중한 시간을 잃는 것이다. 경기를 다 끝냈을 때, 승리자의 이름은 호명될 것이며 그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의 나온 비슷한 단어를 살펴보자). 크리스천의 인생의 이 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적용 및 실천

빌립보서 3:1-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 관점이 더 많이 필요한 그의 개인적 삶을 나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그것이 신분이 되었던, 개인적 성취와 업적이 되었던, 도덕적인 선함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가치를 알 수 없다.

그가 예전에 가졌던 가치들을 모두 잃은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결심은 그의 매일의 삶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 바울은 결코 후회하며 뒤돌아 본적이 없었다. 대신에 그는 담대함과 기쁨의 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로 자신과 같이 하기를 바랐고 권면했던 것이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삶에 중점을 두고 전진할 것을 도전받는다. 우리도 과연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잃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쁨의 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여길 수 있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도착 점에 도달함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 빌립보서 3:8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다” 고 여겼다. 이 관점은 그의 유대인의 신분과 그가 이뤘던 모든 개인적 성취들을 포함한 말이었다. 더불어 그는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바울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들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
2.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속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 갈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제쳐 놓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모임 등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들을 왜 우선순위로 삼는 것일까 ?
4. 십자가의 가치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두는 가치관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

할례

할례는 구약 성서 시대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초로 시작되었다 (창세기 17:1-14). 남자들은 나은지 팔 일 만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다. 이방인이나 유대 관습을 따르고자 하던 자들에게 할례란 유대 관습을 좇는데 필요한 아주 주요한 조건 중의 하나였다.

당시의 할례란 단순히 종교적 관습으로 여겨질 뿐 만 아니라 참 유대인이라고 여겨지는 징표가 되었다. 매커비가의 반역(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의 일어난 일로서 유대인들을 큰 두려움에 떨게 했음)이래로 할례는 신분을 표시하는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초대 교회 때 몇몇 유대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 문제였다기보다는 도리어 믿는 자들로서 유대 공동체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로 여겨졌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충성을 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겨진 것이다.

의로움과 믿음

의로움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빌립보서 3:9절은 말하기를 바울의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게 만들었다.

<p>[제 11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안에서 기뻐하라</p>
<p>핵심본문 빌 4:4-20</p> <p>배경 빌 4:4-20</p>	<p>학습주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더욱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p>

들어가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찾았다. 환경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만족과 기쁨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보았다.

데이빗 리빙스톤 (1813-1873)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모했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그는 자신의 가족을 선교사역을 위해 아프리카로 데리고 갔다. 며칠이 지난 후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죽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스코틀랜드로 데려다 놓은 후 자신은 다시 아프리카로 홀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5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그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사자에게 물린 적도 있었고, 사고로 눈을 한 쪽 잃기도 했다. 안식년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의 가족도 동의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그의 아내를 불렀다.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한 당일, 그녀는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렸다. 그녀는 결국 그 병으로 죽어서 남편의 손에 땅에 묻혀졌다.

Livingstone was asked whether he thought his sacrifice was worth the outcome. He answered: 리빙스톤은 그의 희생이 과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나를 지명해주신 것에 대해 기뻐한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희생에 대해서 말한다. 과연 그것이 희생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결코 값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빛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값은 것에 불과하다. 건강한 몸으로, 당연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재와 장래의 영광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희망찬 소망 속에서 이미 축복된 보상을 받은 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고통과, 아픔, 질병, 위험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거나, 영적으로 지치게 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시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데이빗 리빙스톤의 성명, 캠프리지 대학, 1857년 12월 4일]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직을 임명한 것을 기뻐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격려한다. 바울은 그의 서신 말미에서도 기뻐하라고 신자들을 촉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깊이 사랑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깊이 사랑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수종을 들게 했다 (빌 4:18). 바울은 자신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에 기뻐했고 그는 그들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도록 촉구했다.

참된 기쁨은 드러난다 (4:4-7)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촉구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식으로 말하기를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한다 (빌 4:5). 관용은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 중의 하나이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4:5) 라는 표현은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더욱 강조한다.

언뜻 보면 6절은 이전의 하나 됨과 전도에 대한 강조에서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4:6), 혹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 빌립보 신자들과 바울 스스로의 상황에 좀 더 맞는 표현이다. 신자들은 내부적으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도전을 접했고,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바울은 수감되어 있었다. 6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염려라는 단어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이 서신에서 다루었었고 (2장),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 총만하게 아는 지를 다루었었다 (3장). 이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과 대안, 혹은 해결책으로 감사와 함께 세 가지의 모드의 기도가 제시되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4:6). 바울은 여기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어는 “기도”로 번역된 ‘프로세우크’ (proseuche) 인데 일반적인 기도에 사용된다.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단어는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나 혹은 중보기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두 번째 그리스어는 ‘디시스’ (deesis)인데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그리스어는 ‘아이테마’ (aitema)인데 이는 특별히 요구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모드의 기도는 모두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쓸데 없는 걱정과 대안 바울의 해결책은 또한 기도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감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참된 기쁨은 목적이 있다 (4:8-9)

바울이 4:1에서 시작했던 교훈은 8절과 10절에서 도덕적인 미덕에 초점을 맞추며 끝난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기쁨이다. 바울은 여기서 6 가지 도덕적 미덕을 열거하고 있다. 바울은 신자들이 이러한 미덕을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4:8). 여기서 “생각하다” 는 그리스어 시제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8절의 미덕들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미덕들은 당시의 문화였다.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미덕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이런 삶에 몰두하도록 격려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 친숙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미덕들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 (4:9) 해야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것은 복음이었다. 윤리적 미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된 기쁨은 만족이다 (4:10-13)

바울은 다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보여준 관심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고 썼다 (4:10). 바울이 기뻐하는 초점, 혹은 그의 기쁨의 영역은 “주 안에서”였다.

11절에서 바울은 그의 만족에 대해서 썼다. 그는 그가 만족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존한 기쁨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만족은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바울은 12절에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만족들을 배웠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그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4:13)고 썼다. 이러한 지식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배웠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그 배움이 과거의 어느 때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이 이러한 만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우게 했다. 그는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4:13)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참된 기쁨은 나누는 것이다 (4:14-20)

바울시대의 감옥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곳에서 맞아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으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물어버리거나 바다에 고기밥으로 던져버리거나 할 뿐이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교회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었고, 위로였고, 또 신앙적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교인들의 도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안에서 그 고통을 견디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옆에서 돕는 힘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 역할을 빌립보교인들이 해 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고백한 대로 자기에게 능력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14절에서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4:18). 감옥에 있던 바울이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했겠는가? 그런데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풍족한 마음이 된 것이다.

1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교인들의 물질적 선물에 대한 바울의 신령한 축복을 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조차 극진히 돌봐주신 하나님이 빌립보교인들에게 당연히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안에 거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적용 및 실천

참된 기쁨은 무엇보다도 신자의 구원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하지만 매일의 기쁨은 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은 배워질 수 있고, 한 번 배우게 되면 나눌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은 전달되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낸다. 당신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참된 만족을 배우고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

1. 왜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안식처인가?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2. 4:13절 말씀의 정신이 어떻게 잘못 오용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
3.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이 만족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가?
4. 우리는 불만이 있어야 되는가? 거룩한 불만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5.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꾸며낸 것이 아닌 참된 기쁨, 피상적 행복이 아닌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참고]

팍스 로마 (Pax Romana)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빌 4:7)은 로마인의 개념인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로마 제국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팍스 로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이 평화는 “평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이 평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어 에이레네 (eirene)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 평화는 외부적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서 “shalom”의 개념과 오버랩 된다. shalom은 온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는 내적 온전함과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세상의 평화는 외적인 것이고, 기껏해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는 것이다.

단원 3 : 골로새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를 선포하고 주님과 그의 관계가 신실함이 요구하는 것을 본다.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 위대한 사람,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라고 확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단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좌우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골로새는 아시아의 로마 통치 지역으로서, 근대 터키의 서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00 마일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1세기에 며칠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2:1), 그의 영향력은 이 서신이 도착하기 전부터 분명하게 미치고 있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행 19:10).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골로새 사람들도 포함한 말일 것이다. 바울은 또한 10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오디게아 사람들과도 밀접한 접촉이 있었다 (골 2:1, 4:13, 15-16).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 (1:3-4; 2:1).

이 서신에 있는 몇 개의 구절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3, 10, 18). 전통적인 견해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인, A.D. 60년 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행 28:30-31) 골로새서를 썼다고 본다.

이 단원의 과목들은 골로새서 1-2 장에 관한 것이다.

단원 4: 골로새서

제 12 과	그리스도의 지극하심을 찬양	골 1:15-23
제 13 과	실재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춤	골 2:6-23

<p>[제 12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골 1:15-2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골 1:1-23</p>	<p>학습주제 그리스도는 창조물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본체이다.</p> <p>탐구질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고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할 수 있다.</p>

들어가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물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바울은 또한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신 주권자시지만 그는 우리가 만든 방어벽들을 강제로 부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지는 않는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달라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방어벽들을 부수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벽들을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해주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자가 되게 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도록 편지를 썼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이 부분은 사실 초대 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리던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 예를 들어 몇 개의 절인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본래의 찬송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인지 - 대부분의 학자는 바울이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찬송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 바울은 편지 서두에 찬송을 집어넣었을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음악 사역자가 찬송을 부르는 중간에 노래를 중단시키고 회중들이 부르던 그 가사를 천천히 반복하게 하는 것은 보통 있었던 일이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십니까? 음악 사역자는 말하곤 했다. 정말 부르고 있는 가사를 믿습니까? 종종 이것은 우리에게 노래를 좀더 크게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그 효과는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십니까? 지금 부르고 있는 가사 대로 믿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던 노래를 지적하며 그는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실재에 잘 집중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바울은 우리도 역시 격려한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오, 교회의 주인이시오, 모든 신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창조주 (1:15-17)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골 1:15) 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여기서 “형상” 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투영이라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단순히 그의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실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역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시에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골 1:15)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나신 분” 이라는 표현이 의아하게 들릴 것이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작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는 말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리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상속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이스라엘 가족 안에서 장자가 그의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신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 단지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세계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어떤 신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싸여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 먹으면 “마귀적인” 혹은 다른 영적인 힘들에 대해 휩쓸리기 쉽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수 없는 어떤 것도 없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마치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물은 그 분 안에 존속합니다” (1:17). 우주의 모든 구성물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존속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상생활의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한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1:18-19)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그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단지 중단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냥 놔둬 버리는 어떤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바로 이러한 부류의 신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다. 바울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매일,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회중들을 이끌어 가시는 머리로서 늘 현존하시며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18)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역설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형성된 것이다. 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성경공부, 그리고 교제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어느 때, 어느 시대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이 교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 였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가에 근거해서 교회를 결정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 교회의 회의들이 어떤 정책이나 큰 목소리로 통제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론적으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실재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모든 신자의 주인 (1:20-23)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며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주님이라는 것을 또한 이해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홀로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죄는 처벌하셔야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우주의 창조자, 가장 먼저 난 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고, 우리 위에 놓여 있는 죄의 형벌을 가지고 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 일은 단지 사람들, 혹은 교회를 위한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최고의 권한은 이러한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행동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통치자시오, 우리 삶의 지극히 높으신 인도자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사졌고, 지불되었다, 싸구려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잘못된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독재적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긴급한 촉구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대로 두 번째일 수 없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없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믿는 것을 혼합할 수 없다.

적용 및 실천

당신은 잠깐 멈춰 서서 당신이 내리는 결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의 어느 영역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존속된다는 것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의 탄생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갈망이나,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이 그분, 오직 그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주었고, 요컨대,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찬송 부르고 있는 대로 믿습니까?

질문

1.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당신의 개인적인 두려움들, 문제들, 혹은 압박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2.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매일 당신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3. 교회에 참여하는 당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현재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당신께 더욱 집중되어 있는가?
4.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당신으로 하여금 온전히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리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당신 삶의 어떤 영역들을 아직도 당신이 주인처럼 쥐고 있는가?

[참고]

성도의 견인

침례교는 소위 성도의 견인에 대한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성도의 견인이란 한번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당신의 구원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1:22-23절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은 만일 당신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1:22). 만일 당신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조에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구절은 항상 그리스도가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그 다음 구절들의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동시에 믿고 있는 개인들이던지,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해드리기

- ◆ 당신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혹은 당신을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맡겨라.
- ◆ 오늘 당신의 교회와 그 안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라. 당신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라.
- ◆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랑에 당신을 온전히 드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 삶의 가장 최고의 것들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p>[제 13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영적 속임수가 아닌 실재에 집중하라</p>
<p>핵심본문 골 2:6-23</p> <p>배경 골 2:6-23</p>	<p>학습주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영적 속임수를 주의하라</p> <p>탐구질문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일 때, 사람들은 어떤 영적 교묘한 속임수에 때때로 의지하는가?</p> <p>학습목표 규칙, 의식, 그리고 신조와 관습에 관한 영적 장치가 아니라 실재,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한다.</p>

들어가기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 가운데 있는 이상한 사상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있는 잘못된 행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골로새서 2:6-23절을 읽으면 마치 의사가 어떤 증상을 보면서도 고칠 수 없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논쟁의 한 일면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골로새 신자들은 나쁜 가르침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바울은 누가, 혹은 어떤 그룹이 그 가르침에 책임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적대자의 주장들이 일으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반박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을 내어 놓았다. 가장 초기에 나왔던 주장 중의 하나는 바울은 유대 신자와 그리스 신자들이 서로 잡혀있었던 어떤 무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 측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이 일어났다.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다양한 가치관을 기독교에 들여오거나 혹은 그것들을 혼합했던 일단의 무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을 이 무리들을 왕하자 (pre-Gnostic)로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영지주의적 특성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신비주의적 종료들에 속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학설은 쿰란 공동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신비주의 형태의 유대교라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이 정확한지 확실치 않지만 그가 분명하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 홀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이나 관습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초자연적 힘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가르침에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언급한다.

그리스도 홀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2:6-15)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 가르침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었다 (골 2:8).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공허한 철학이란 것을 간파했다. 그것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 (2:8)의 산물이었다. 바울이 “유치한 원리” 라고 언급했을 때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그리스 사람들이 모든 물질은 땅, 바람, 물, 그리고 불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던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언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구성 물질들은 종종 서로 상극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골로새 신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리스적이었는지, 혹은 로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마귀적인 초자연적 힘들의 영향으로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의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거짓 교훈의 공허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약속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공허하지 않으며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2:9). 그리스도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역시 마찬가지다 (2:10).

헛된 교훈과 신성으로 가득 찬 구세주, 또한 이 구세주로 가득 채워진 신자 사이의 비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 홀로 근본이 신성이신 진리이시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진리에 도달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아무런 더할 것이 필요 없다.

이쯤에서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율법의 조문들은 어떻게 하나?” 바울은 바로 이 조문들 중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할례와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조문이 그것이다. 바울은 먼저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육신의 몸” (2:11)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불 순결을 씻어 버리신다. 이러한 씻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는 우리의 침례의식 속에 상징화 되어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긴 율법들에 대한 대속을 하셨다.

바울은 그의 주제를 분명히 했다. 이제 그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

의식이나 행습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 (2:16-18a)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던 주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종교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종교 의식은 유대교의 음식에 대한 규정과 절기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2:16)는 특정한 날들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대교의 율법을 언급한 것이었다 (대상 23:31; 대하 2:4, 31:3; 느 10:33을 보라).

바울은 또한 금욕주의의 행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욕주의는 음식, 옷, 수면, 혹은 다른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들을 부정하는 행습이었다. 금욕주의가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몸을 부정함으로써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었다. 바울은 금욕주의를 불필요한 행습으로 보았다. 그는 엄격한 식습관과 정결의식은 지혜를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골 2:21-23)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울은 또한 이러한 것들은 단지 “그림자” (2:1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금욕주의를 그림자로 부름으로써 바울은 한 번 더 이러한 의식들은 헛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림자는 사람이 드리우는 1차원적 형상에 불과하다. 그것의 유일한 가치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우리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당신이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결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것이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 출석,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예배,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되고 있는가?

초자연적 힘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 (2:18b-23)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트렌드가 되었다. 바울은 “천사들을 숭배” (골 2:18) 하는 거짓 교사들 속에 있었던 이러한 트렌드를 다루었다. 그런 사람은 신적인 환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밀했다. 그의 마음은 헛된 의식들로 부풀려 있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공격은 거짓 교사들이 실재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신뢰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머리가 잘렸고, 그 몸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능자라는 것, 그가 유일한 통치자요, 권위자라는 것, 천사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비한 체험들을 우러러 바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가디언 천사나 혹은 환상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 없이는 그러한 체험들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적용 및 실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간에서 비롯된 거짓과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의도는 그리스도 홀로 우리를 위해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이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방법이나 가장 고대의 법이 필요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한다. 종교적인 점검표나, 인간의 통찰력이 아니다.

질문

1. 그리스도와 매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2.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3. 당신은 오늘날의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향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4. 당신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 혹은 신비주의적 행습들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러한 의식들이나 행습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믿는가?
5.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영적인과 초자연적인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가?

[참고]

영지주의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한 때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영지주의는 어떤 비밀스런 지식이 특정 그룹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포함한다. 영지주의의 한 교의는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두 무리로 나뉘게 했는데, 한 무리는 탐닉을 허용했고, 다른 무리는 금욕주의를 추구했다. 영지주의의 어떤 요소들이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지만, 최근의 학계는 영지주의는 후기에 생겼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분명한 것은 초기 영지주의 혹은 단지 후에 나온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지주의는 매우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많은 다른 이교들과 동일시하기가 쉽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